

**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현대불교신문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  
**(02)737-0090(직) · 737-8881(대)**

# 현대불교

불교성지순례전문  
**관음도량 보타산, 항주 5일**  
 5월 1, 8, 15, 22, 29일 699,000원  
 서울시 종로구 통인1가 1번지 교보빌딩 10층(전화3401)  
 TEL: (02)725-7595 / FAX: (02)725-7923  
 E-Mail: yahotour21@thermal.net

구독신청 02)737-0090 · 대표 02) 737-8881

buddhanews.com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4월 27일(음력3월 19일) 수요일 (주간) 제523호

조계종 '군중특별교구' 6월 시행

## 군포교 변화 부작용 우려

군법당 모두 조계종 명칭 표기  
 다른 종단 "활동근거 어디에?"

"군 포교" 이제 더 이상 내 앞에서 군대 얘기는 꺼내지 말아 달라." 최전방 부대 법당에서 7년째 군 포교를 해온 태고종 A 스님은 "군 포교는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라며 역정부터 냈다. A 스님은 넘겨지 않은 절 형편에도 군 포교를 위해 그동안 지지 않은 돈을 써왔다. 최근 낡은 군 법당을 개조할 때는 군 장병들이 좋은 여건에서 법회를 한다는 생각이 사람 불사를 위해 모아 두었던 수천만 원을 아낌없이 내놓았다.

다는 것이 스님들의 불만이다. 조계종 소속으로 군 포교 현장에 활동하는 인원은 군법사 140여명, 군법당과 결연을 맺은 사찰은 200여 곳이다. 태고·천태·진각종 소속으로 군 포교활동을 펼치는 인원은 300여 곳 사찰, 천태종과 진각종만 도 각각 수십여 명의 인원이 군 불교현장을 누비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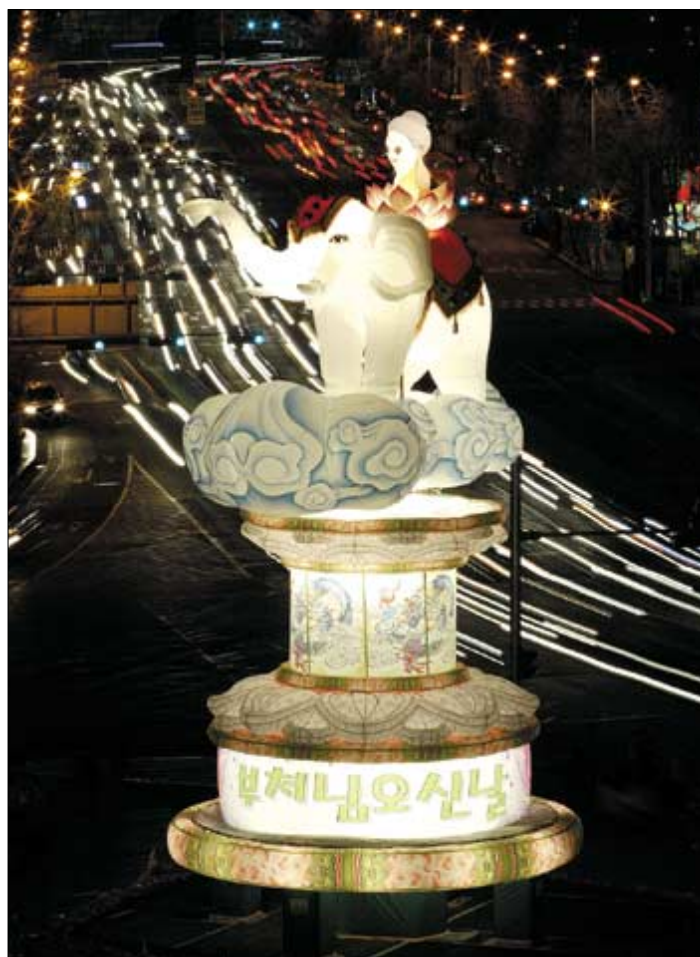
강유신 기자 sharmok@buddhapia.com

2면으로 계속

무엇이 A 스님의 의욕을 이렇게 꺾어버렸을까? A 스님은 "군중교구가 발족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그동안 정성들여 키워놓은 자식을 잃어 버릴 것처럼 불안하다. 앞으로 우리 같은 사람이 군 포교에 발을 붙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최근 군 포교를 하는 조계종 이외의 스님들 사이에는 이렇다가 군 포교에서 손을 떼어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매주 훈련소 법당 법회를 보는 진각종 B 정사의 생각도 마찬가지다. "종단 기금으로 군 법당을 마련해 국방부에 기부했다"면서 "이대로라면 종단 기금으로 만든 법당에 다른 종단 주지가 파견되는 격이다. 군 포교는 불교계 전체의 몫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법당을 잃어버린 것처럼 허탈하다"고 했다. B 정사는 그간 서로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며 사이가 좋았던 군승들과의 관계도 많이 어색해지는 것 같다는 푸념을 늘어놓았다.

조계종은 군중특별교구법을 4월 8일 공포했다. 이 법이 6월말 경 시행되면 현재 각 부대에 위치한 군 법당들은 특별교구의 말사로 통합돼 '조계종 ○○사'로 불리게 된다. 조계종 군중특별교구법이 140여 명 군법사의 인사 등에 대해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타 종단 스님들의 군 법당 추원은 쉽지 않게 될 게 뻔하다.



"기쁨과 나눔의 등' 밝혔다  
 속에 이어 '연등음악회'가 올해 처음 개최됐다.  
 불기 2549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4월 22일 서울시청 앞에 '기쁨과 나눔의 등'이 밝혀졌다. 이날 절들 사진·박재환 기자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4월 20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원법회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사진 앞줄 왼쪽 끝)이 합장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화합과 상생 정신을 국민의 가슴에 ..."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원법회'서 노대통령 메시지

20일 종단협 추최

"국가발전의 밑거름은 화합과 상생의 불교정신입니다. 불교가 더욱 융성해져 국민들 속에 더 많이 퍼지

길 기원합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법장, 이하 종단협)가 4월 20일 서울 흥은동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개최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원법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2천만 불자들에게 메시지를 발표했다.

12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법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천년고찰 낙산사가 산불로 훼손됐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착잡했다"며 "힘을 합쳐 더 좋게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종단협 회장 법장 스님은 기원사를 통해 "홍콩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계 지도자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서로 이해하고 양보해야 한다"며 "현재의 국내적외적인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화합과 협력 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은 "삼보의 수승한 가피를 받아 국운이 융창하고 남북통일이 이뤄질 기를 바란다"고 축원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지역과 국가, 민족간의 이기적 배타주의를 버리고, 함께 나누며 하나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하자"고 발원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현대불교방송이 제작한 '부처님이 여는 세상'이라는 영상물도 상영됐다. 관련기사 4면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 진각종 제 27대 통리원장 회정 정사

20일 정기총의회서 선출

70만 진각종도를 이끌 제 27대 통리원장에 회정(서울 밀각심인당 주교) 정사가 선출됐다. 인디뉴연진각종은 4월 20일 서울 하일곡동 총인원에서 37명 총회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42차 정기총의회를 열고, 제 27대 통리원장에 23표를 획득한 회정 정사를 선출했다.

신임 통리원장으로 선출된 회정 정사는 "전일 집행부가 추진하던 사

업들을 계승하는 한편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 진각종이 명실상부한 밀교종종단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하는 통리원장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회정 정사는 1951년 경북 출생으로 80년 향가심인당 교화를 시작으로 황경심인당 지륜심인당 주교, 92~95년 제 8·9대 총회회의 의원, 97년 통리원 총무부장, 진각복지재단 상임이사, 98년 99년 회당학원 이사 등을 지냈다. 김원우 기자

## 제1차 보현도량 도피안사구국구세 대법회

5월 1일(일) 오전 10시 30분 도피안사서 입제(관내인대 10면)

## 本社 5월부터 청운동에서 업무

전화·팩스 그대로... 책방 여시아문 임시 휴점

현대불교신문사는 건물 신축관계로 2005년 5월부터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소재 상호신용은행연수원 건물에서 업무를 보게 됩니다. 현대불교는 새 보금자리에서 빠르게 변화해 가는 언론 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불교정보의 충본산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사무공간의 이전과 관련, 부득이 책방 여시아문은 당분간 휴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여시아문(www.yosiamun.com)과 통신판매(02-737-0695, 팩스 02-737-0696)로 그동안의 성원에 보답하며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 달라이 라마 14대 선사 초청 설선대법회

법주: 정광 스님 / 4월 30일 오후 2시 범어사

**'할'**  
 허공에 그림처럼 밀고 흘러지는게  
 돈 명예 권세 행복  
 우리네 인생...생사라고 비유하셨죠  
 그림·조태호  
 무여 스님의 '범어사 설선대법회' 법문 24·25면에

불기 2549년 부처님오신날  
 나라번영 민족화합 세계평화 불교중흥기원  
 제 10회 불교문화대제전  
**玉龍子 大吉祥圖 作品展**  
 불기 2549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불자님 가정에 부처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심을 기원드립니다. 수행과 포교에 헌신하여온 石山 玉龍子 석지학스님이 20여년간 김상도를 연구하고 정진 하여 1996년 시범에 동행한 제1회 제진은 당시 대한불교조계종 총경 卞大 宗師에서 원리 임석 증명서를 권하고 당시 대법회 축전으로 축하 동참, 조계종 총무원장 송원스님, 이수철 국두승리 등 각계인사와 사부대중 1만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원만히 성취 되었습니다. 이후 끊임없는 연마를 계속하여 금년 제10회 대제전특별전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김상도는 불교의 법구비유경 제4편에 실려져 있어 있습니다. 지난해 제9회 대제전 작품은 대길상도와 함께 왕희지체 서법, 卍의 예식, 역대 중국장지법원, 卍의 동식예식, 卍의 편법 등 각종 작품을 연마하여 화와 예술의 심오한 경지를 성취하여온 石山 玉龍子 석지학 스님의 화작들도 동참한 1만여 사부대중의 가슴에 무한한 감동을 체현해 하였습니다. 대제전은 그동안 절교 대표 문화제전의 한 흐름으로 부처님의 불교문화와 법근사회 구현에도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격려와 축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4년 5월 4일 불평등 제9회제 기념대법회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에서 대법회에 원리 임석 소중한 법어를 전하시어 心祝 하였습니다. 영축통일 풍도사주지 현 돈스님, 응주사 주지 정락스님, 파르다 싸라디 레이 주한인도대사, 연련우리당 정동영의장, 롯데그룹 신병호 고문 등 여러분이 직접 법회에 동참하여 축하하였습니다. 연련우리당 김근대 원내대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롯데그룹 신병호 회장 등 각계인사 다수가 제9회 제진에 축하의 뜻으로 동참하였습니다. 石山 玉龍子스님 선별 대길상도는 세계적 작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대길상도는 각국기관 美國(대사관)을 국내외 여러 인연처와 각급단체 언론사등에 작품이 전시되어 소중하게 소장되어 있습니다. 石山 玉龍子스님 선별 대길상도는 세계적 특허인종기관인 미국 연방정부 특허청 (UNITED STATES OF AMERICA PATENT AND TRADEMARK OFFICE)과 日本정부 특허청의 의장특허를 획득한 독창성과 예술성 높은 품격 국제적평판을 인정받은 세계적 작품입니다. 제9회 대법회를 모시고 10회 제진을 봉행함에 고강한 필력의 다양한 김상도와 무려 10여년에 이르는 天馬圖, 추사체, 재봉보공도 등 정심다하여 밤새워 조성한 작품들을 모아 장엄하고 환희충만한 세상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기법대법회: 2005년 5월 3일(화)오전 11시  
 ● 작품전: 2005년 5월 3일~5월 8일(6일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 기법불교문화대제전: 작품전 기간 중 불교전통문화행사  
 ● 불자연예인 공연: 불자연예인단의 특별공연 \* 동참 불자님께 호신불 목걸이 경건 등 기법품 증정

● 장소: 잠실 롯데호텔 3층 특별대법회장, 전시관  
 ● 기법불교문화대제전: 작품전 기간 중 불교전통문화행사

● 서울 소림정사 불교아카데미 총동문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32  
 TEL: 3446-2158, 2185, 511-6210~5, 3443-9871~7 FAX: 511-6214